

##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사업·예산 방향 논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아시아 지역 특허청장 화상회의 참석 -
- 국제출원 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전방향 제시 -

이인실 특허청장은 5월 2일(화) 오후 2시 화상으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아시아 지역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해 사무총장 및 13개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과 함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업·예산 위원회의제를 검토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 26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

\*\*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몽고 특허청장 등

이번 회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발전 전략과 '24년~'25년 사업 및 예산 방향을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됐다.

다렌 탕 사무총장은 세계(글로벌)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특허청장은 지식재산(IP) 금융,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된 한국 특허청의 풍부한 경험을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과 공유하는 한편, 개도국의 지식재산(IP)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PCT) 수수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수입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출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현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External Office)가 우리나라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방한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지식재산권 관련 중추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은 행사 이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윤세영 (042-481-8197)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허원석 (042-481-8555)